



드러커 박사와 필자, 2004년 5월 28일 드러커 교수 자택에서.

드러커와 함께 진정한 20세기의 막이 내리다

위대한 관찰자
피터 드러커

글 남상진

세기의 지적 거인 드러커가 96세 생일을 8일 남기고 11월 11일에 타계했다. 지난 11월 9일 일본드러커학회준비회에서 최근의 근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드러커가 최근 보청기를 사용하는데 소리가 울려 힘들어한다며 귓속에서 울리지 않는 최신 보청기를 찾아서 보내드리자고 동료가 제안했다. 드러커는 2년 전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최근까지 의욕적으로 활동했으며 며칠 전에는 일본드러커학회 발족을 격려하는 편지까지 보내주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그 이틀 후에 생애를 마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드러커는 20세기 초엽 제1차 세계대전부터 21세기 초엽 오늘의 대격변기까지 약 96년간 살다간 역사의 산 증인이자 위대한 선생이었다. 드러커의 경영철학을 배우고 전하는 '드러커리안'인 필자로서는 20세기의 산 증인이며 21세기의 예견자인 드러커 교수의 타계로 이제 진정으로 20세기가 끝났다는 생각이 든다.

드러커의 발자취와 그의 저술들

드러커는 1909년 구대륙 문명의 중심지인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고급관료의 이들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정신분석가인 프로이트와 경제학자인 슈페터를 만나 교류했다. 함부르크대학 및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법률학, 경제학, 철학 등을 폭넓게 공부하였고 1931년에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법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드러커는 나치스정권의 독일에서는 석간신문 기자로 일하며 히틀러를 취재하기도 했다. 청년 드러커는 1933년에 나치스의 핍박을 피해 런던으로 건너갔다. 보험회사와 은행 등 회사의 경제고

문을 지내거나 투자은행에서 일했다. 신문과 잡지 등에 의욕적으로 투고했으며, 동양 미술에 심취했다. 독일에서 가정교사 때 사귄 3년 연하의 도리스와 백화점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우연히 재회하여 결혼했다. 도리스 여사는 현재 92세로 오랫동안 드러커와 함께 했다.

1937년에 신문사특과원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1939년에 파시즘과 나치즘의 본질을 폭로하고 전체주의의 추락을 예언했으며, 독일과 소련의 결탁을 예측한 처녀작 《경제인의 종말The End of Economic》을 세상에 퍼냈다. 수상에 취임하기 전의 윈스턴 처칠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등 영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으로 드러커는 유명하게 되었다.

신문기자와 정치학자로 출발한 드러커는 GM의 컨설턴트 일을 받아들이면서 변화해 갔다. 1942년에는 미국을 배경으로 기업중심의 공동체 건설을 구상한 저서 《산업인의 미래》를 저술했다. 이후 GM의 경영컨설턴트로서 대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경험을 집약해 정치·경제·산업론에서 기업론으로 옮겨가는 분수령이 된 명저 《기업의 개념Concept of the Corporation》을 1946년 펴냈다. 1950년에는 노사관계에도 새로운 통찰을 보이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양자를 통합하려는 산업사회의 구상을 정리한 《새로운 사회New Society》, 1959년에는 현대 산업사회의 규명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담은 논문집 《내일의 이정표Landmarks of Tomorrow》와 경제정책론과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를 독창적으로 다룬 《내일을 위한 사상》 등 산업문명론에 속하는 저작들을 차례로 내놓았다.

《기업의 개념》을 펴낸 이래 매크로(경제) 문제로부터 마

이므로 문제, 즉 현대 산업사회의 중심인 기업으로 드러커의 관심이 옮겨갔는데 그의 경영철학이 담긴 첫 작품인 동시에 그의 대표적인 고전작인 《경영의 실제*The Practice of Management*》를 1954년에 펴내었다. 이 책은 전 세계에 1,00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지금도 '현대경영의 바이블'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가 '경영학을 발명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도 그는 매번 굵직굵직한 저작을 내놓으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결과에 의한 경영*Managing for Results*》(1964) 《단절의 시대*The Age of Discontinuity*》(1969) 《매니지먼트 : 과제, 책임, 실제*Management : Tasks, Responsibilities, Practices*》(1974) 《보이지 않는 혁명*The Unseen Revolution*》(1976) 《혁신과 기업가정신》(1985) 《새로운 현실*The New Realities*》(1989) 《비영리단체의 경영*Managing the Nonprofit Organization*》(1990)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Post-Capitalist Society*》(1993) 《21세기 지식경영》(1993) 《*Next Society*》(2002) 등이 그것이다.

《실천하는 경영자》(2005년)에서는 한국을 혁신과 기업가정신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국가로 평가했고 한국전쟁의 폐허로부터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한 요소로 매니지먼트의 탁월함을 지적하고 있다. 타계할 때까지 현역으로 일했으며 늘 수개월 후의 일정이 빼곡히 잡혀있었다. 끝까지 은퇴라는 것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다.

‘드러커’는 ‘무엇’인가?

드러커를 나타내는 말은 많다. 대표적인 것이 '경영학을 발명한 사람' 혹은 '인간중심의 현대경영학의 아버지', '현대사회의 철인' 등이다. 그는 또한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제거하려고 평생 노력한 남자'로도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를 단순히 뛰어난 경영학자라고 한다면 그 표현은 충분치 않을 뿐더러 정확하지도 않다. 경제학자라고 한다면 더욱욱 빛나간 시각이다. 어떤 이는 사회심리학자로 평가하기도 한다. 또한 사물과 역사, 미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측면을 일컬어 '사회생태학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21세기의 환경, 교육, 개발도상국의 문제 등은 전체로서 이해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전체로 보는 것이 필요하며 부분적인 분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사회생태학'이 드러커를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이다. 드러커 자신도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었다. 드러커는 자신을 '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Born to see*'이라고 했다. 관찰자, 즉 높은 망루에 올라 주위를 살피며 상황을 늘 주시하고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관찰자인 드러커에 관해 드러커의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한 책이 《방관자의 모험》(1979년)이다. 그의 저서들 중 그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 책이다. 그는 저널리스트였으며 관찰자였으며 컨설턴트였으며 교사였다.

드러커의 이 모든 측면을 종합하여 표현한다면 동서양의

역사를 통달하고 특히 과거 100년간의 세계의 모든 흐름을 읽고 관찰하며 유럽, 미국,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모든 세계의 조직들 및 개인들과 상호작용하며, 거시경제와 미시경영을 왕래하며, 어제의 역사와 오늘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흐름 속에서 근미래의 변화를 예견했으며, 사회생태의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는 요소들을 발견하고 인간을 중심에 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바탕으로 둔 현대경영학을 확립한 '경영학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즉 한마디로 그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는 것이다. 이 점이 우물안 개구리식 학자들과 드러커를 구별케 하는 요소이다.

피터와 나

작년 5월 28일에는 몇몇 드러커리안들과 함께 LA근교의 조용한 학원도시 클레어몬트에 있는 드러커 교수의 자택을 방문하여 직접 강의를 들을 기회를 가졌다. 노구에도 불구하고 굵직하고 두터운 음성으로 한 시간 이상 쉽 없이 강의해 주셨다. 보통 30분 이상 면담하기가 힘들지만 그날 드러커는 그칠 줄을 몰랐다. 드러커와의 만남은 아마도 내겐 생애 최고의 큰 충격으로 남을 것이다. 번역과 강연과 배움과 실천을 통해서 드러커의 경영철학을 전파하고 세계의 매니지먼트 수준을 높이는 일이 필생의 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테러로 세상이 떠들썩하고 급격한 변화 속에서 불안에 떠는 우리들에게 드러커는 “그리 걱정할 것 없습니다. 지난 100년간 평화로운 시대란 없었습니다. 더 나쁜 시절도 많았습니다”라고 낙천가답게 대답해 줄 것이다. 여전히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이다.

드러커는 갔지만 그의 철학과 통찰은 남아 우리들에게 변함없는 경영과 삶의 지침이 될 것이다.

드러커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

● 이 글을 쓴 남상진은 일본 SANNŌ대학 경영정보학부 및 JAIST Japan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정보과학연구과를 졸업했다. 현대자동차(주) 기술연구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Engineous Software Inc. 등을 거쳐, 현재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비즈니스컨설턴트를 하고 있으며 일본드러커학회www.drucker-ws.org준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드러커 - 미래를 읽는 힘》 《한 권으로 읽는 드러커 100년의 철학》 《피터드러커 - 리더가 되는 길》 《드러커 - 실천하는 경영자》 《1위의 패러다임(이노베이션의 본질)》 《드러커 - 매니지먼트》(근간) 《드러커 - 나의 이력서》(근간) 등이 있다. sanjam@chol.com